

스페이스X, 4명 승선 유인우주선 발사

케네디센터서 '리질리언스' 발사 성공 민간 우주운송 개막... '우주여행' 속도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16일 오전 9시 27분(한국시간, 현지시간 15일 오후 7시 47분) 우주비행사 4명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쏘아 올렸다.

스페이스X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유인우주선 '리질리언스'(Resilience·회복력)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리질리언스는 팰컨9 로켓에 실려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솟아올랐다. '크루-1'으로 명명된 이번 임무는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실전 무대로 평가된다.

스페이스X는 지난 5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태워 ISS로 보내는 데 성공했는데, 그때는 시험 비행이었다. 이번 발사는 시험 비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유인 우주여행 모델을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우주비행사 4명이 탑승하고 6개월간 ISS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첫 완전 임무 비행이다. 또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드래건 캡슐은 최근 NASA 인증을 받으면서 이 인증을 받은 첫 민간 우주여행용 우주선이 됐다.

이에 따라 이번 비행이 성공하면 앞으로 민간 주도 우주여행이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발사가 한때 괴짜 스타트업으로 여겨졌던 스페이스X에는 성인식을 치르는 순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화물과 우주비행사를 모두 ISS에 보내면서 우주 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이자 NASA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



미국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캡슐 '크루 드래건'을 탑재한 팰컨9 로켓이 1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 있는 미항공우주국(NASA) 케네디우주센터의 발사대에서 이륙하고 있다. 크루 드래건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 4명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가서 6개월간 머물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비행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리질리언스는 앞으로 지구를 여섯 바퀴 도는 과정을 거쳐 17일 오후 1시(한국시간, 현지시간 16일 밤 11시)께 ISS에 도착한다.

우주 왕복비행 실전 무대에 투입된 4명의 주인공은 NASA 소속인 선장 마이클 스킨스(51), 흑인 조종사 빅터 글로버(44), 여성 물리학자 새년 위커(55)와 일본 우

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소속 노쿠치 소이치(55) 우주비행사다.

이날 우주선 발사는 기상 악화로 당초 예정보다 하루 연기됐다. 재활용 로켓인 팰컨9를 회수해야 하는데 이 로켓의 착륙 지점인 해역의 날씨가 악화해 발사가 늦춰졌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57〉 몽케

몽케(蒙哥, 1208~1259)는 몽고 제국의 제4대 황제로 시호는 현종(憲宗)이다. 중국을 정벌해 대리(大理)를 멸망시키고 서방원정을 통해 아바스 왕조를 제압했다. 남송 토벌 중 병사했다.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인 툴루이의 장남이다. 친형제로는 쿠빌라이, 아리크 부케, 훌라구가 있다. 3대 황제 정종 구유크가 과도한 음주와 황음으로 1248년 급사했다. 징기스칸의 장손인 바투 가문은 툴루이 가문과 함께 쿠릴 타이를 얻어 몽케를 황제로 추대했다. 현종 몽케는 1251년 7월 정식으로 즉위했다. 몽케는 결단력이 있고 유능했으며 저돌적인 추진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즉위하자 반대파를 철저히 숙청했다. 자신의 즉위에 반대한 정중환후

(行尚書省)를 두었다. 증원과 신장 및 중앙아시아에 행정서성을 설치했다.

몽케는 몽고주의자로, 몽고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사명감을 가졌다. 사치를 멀리하고 소박한 생활을 즐겼다. 거북점이나 대오점 등을 믿는 무속적 성향이 강한 지도자였다. 그러나 골육을 의심하고 시기했다는 기록이 '신원사'에 남아있다.

1255년 훌라구는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조를 공격해 몽고족의 종주권을 인정하도록 압박했다. 칼리파 알 무스타심 이븐 거부하자 바그다드를 초토화 하였다. 1258년 2월 아바스 왕조가 항복하자 무차별 학살에 나서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켰다. 8만명의 이슬람 신도가 학살당했다고 전해진다.

남송 경락을 담당한 쿠빌라이는 남송의 가사도 군을 압박했다. 목표는 양

몽고제국 4대 황제...남송 정벌 중 급사

를 강에 던져 죽였다. 자신과 황제 자리를 다툰 오고타이의 손자 시라문, 정종의 아들 호자, 낙 등도 숙청했다. 오고타이, 차가타이 양 가문을 철저히 제압했다. 처형된 유력 인사가 77명에 달한 대대적인 숙청이었다. 맹우 바투와는 긴밀히 유대해 파미르 고원 서쪽의 통치권을 바투에게 사실상 일임했다. 오고타이 가문은 몰락했다.

오고타이, 구육 시대를 거치면서 느슨해진 제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동생인 쿠빌라이에게 중국 등 동방 정벌을 명하였다. 그를 막받던지(莫南漢地) 대총독으로 임명했다. 막내인 훌라구에게는 이란과 중동 지방의 정략을 명하였다. 이를 위해 몽고 본토에서 10호당 2명씩의 젊은이를 전사로 차출하였다. 무장인 사릭 노안에게는 인도 방면으로의 진공을 지시했다. 사릭 노안이 황제에게 언제까지 주둔해야 하느냐고 묻자 몽케는 "영원히"라고 답했다. 몽고 세계 제국을 구축하려는 그의 야심을 엿볼 수 있는 일화다. 친동생인 쿠빌라이, 아리크 부케, 훌라구와의 형제 정권을 지향했다. 동쪽으로는 남송, 서쪽으로는 서아시아와 유럽을 목표로 하였다.

몽케는 국도 카라코룸에 중앙정부를 설립해 신임하는 망구사르를 재상으로 기용했다. 몽고 이외의 제국을 셋으로 나누어 금나라에 운영되었던 행정서성

자강 종류의 거점도시인 약주(鄂州)였다. 쿠빌라이는 남송을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해 운남(雲南)과 대리(大理)에 대한 원정에 나섰다. 1253년 운남 원정이 성공하자 쿠빌라이는 무장인 우랑카타이에게 전선을 맡기고 1254년 말 분거지인 금원전 초원으로 복귀했다. 남송 정벌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 판단한 쿠빌라이의 결정이었다. 성미 급한 몽케는 이러한 움직임에 불만을 느꼈다. 감사단을 파견해 쿠빌라이가 기용한 한인관료를 처형하는 등 견제에 나섰다. 결국 1257년 봄 몽케는 스스로 남송 진정 계획을 발표했다. 단기 결전으로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생각이었다. 다리에 통증이 생긴 쿠빌라이에게는 쉬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천으로 진군한 몽케군은 무더운 더위로 방면으로의 진공을 지시했다. 사릭 노안에게 언제까지 주둔해야 하느냐고 묻자 몽케는 "영원히"라고 답했다. 몽고 세계 제국을 구축하려는 그의 야심을 엿볼 수 있는 일화다. 친동생인 쿠빌라이, 아리크 부케, 훌라구와의 형제 정권을 지향했다. 동쪽으로는 남송, 서쪽으로는 서아시아와 유럽을 목표로 하였다.

트럼프, 선거 패배 얼떨결에 승복?

“그가 조작으로 이겼어” 트윗했다 언론들 지적에 “패배 인정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조작으로 이겼다고 트윗했다가 일부 미 언론이 '처음으로(대선 패배를 인정했다)'고 해석하자 "인정한 것 아니다"라고 뒤늦게 수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전 트위터에 "그(바이든)는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이겼다(won)"며 "어떤 투표 감시자나 참관인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또 "나쁜 평판과 조악한 장비들 가진 급진 좌파 개인 소유 회사 도미니언에 의해 개표 집계 이뤄졌다"는 식으로 비난하면서 "선거일 밤에 일어났던 모든 기계적인 결함은 정말로 표를 훔치려다 들킨 것이지만 그들은 들들나지 않고 많이 성공했다. 우편선거는 역겨운 조크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이 조작됐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이었지만, '그가 이겼다'는 표현을 처음 쓴 탓인지 일부 미 언론은 이를 승복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 "트럼프가 그

의 패배를 음모론으로 돌리면서도 처음으로 바이든이 이겼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고, 정치전문매체 더힐도 "트럼프가 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바이든이 '이겼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런 보도 때문인지 트럼프는 즉각 "조작된 선거,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트윗을 다시 올리면서 "그는 가짜뉴스 미디어의 눈으로 볼 때만 이겼다.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갈 길은 멀다. 이것은 조작된 선거였다"고 강조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작 선거 주장에 "전국적으로 개표하는 동안 선거 감시인과 참관인들이 허용됐다"며 "소프트웨어를 만든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가 개표에 광범위한 오류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더힐은 "트럼프는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 접근이 금지됐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면서 트럼프 캠프의 법적 이의제기와 관련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표 계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트위터는 참관인이 허용되지 않았고 개표 시스템 결함 등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또다시 경고 딱지를 붙였다. /연합뉴스

“내년 최악의 식량위기 닥친다” 세계식량계획, 부자들 기부 촉구

코로나19 여파로 내년에 최악의 식량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식량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은 '기근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우려다.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황이 올해보다 악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기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FP는 기아 퇴치를 위해 세워진 유엔 산하 세계 최대 식량 원조기구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는 WFP가 기아 예방뿐 아니라 안정과 평화를 위한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며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쟁-재난지역과 난민수용소에서 식량을 공급했지만, 가장 힘든 시기는 바로 지금부터"라며 "내년에는 더 극심한 식량난과 기근이 닥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FP는 기아 해소와 아동 지원 등을 위해 내년에 150억 달러(한화 약 16조6천억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기부금을 확보한다면 세계적인 기근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약 30개국은 기근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 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75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